

# 氣嗽에 對한 文獻的 考察

金 貞 和

## I . 緒 論

咳嗽의 定義를 살펴보면 咳는 有聲無痰으로 肺氣가 損傷되어 不爽한 것이며, 嗽는 有痰無聲으로 脾濕이 動하여 痰이된 所致이다. 咳嗽는 有痰有聲한 것으로 肺氣가 損傷되고 脾濕이 動하여 發生하므로 咳嗽가 兼發하는 것이다 1. 2).

咳嗽의 分類는 諸 醫家들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巢<sup>3)</sup>는 風·寒·支·肝·心·脾·腎·膽·厥陰咳 等の 十種으로 區分하였고, 陳<sup>4)</sup>은 內因·外因·不內外因의 三種으로 分類하였으며, 李<sup>5)</sup>는 火·鬱·勞·食·七情·痰·水·瘀血·肺脹滿·久咳 等 十種으로 나누었고, 許<sup>2)</sup>는 風·寒·熱·濕·鬱·勞·食積·氣·痰·乾·血·酒·久·火·夜天行嗽 等の 十六種으로 記述하였다.

이 中 七情損傷에 依하여 發生되는 氣嗽는 咯不出嚔不下的 梅核氣 症狀를 나타내며 그 原因은 七情氣鬱로 痰涎이 氣를 따라 積聚된 것으로 보았고, 臟腑不和로 肺脾가 壅滯되고 風邪 熱氣가 搏於經絡하여 蘊蓄不散해서 發生된다.

그 症狀는 咽喉 部位에 梅核의 形狀으로 咽喉를 막아 咯不出 嚔不下가 되고, 中脘이 痞滿하고 氣가 舒揚하지 못하거나, 痰飲이 鬱滯되어 惡心嘔吐가 생기고 飲食聚取가 困難하여 진다<sup>6)</sup>.

그 治療는 調氣를 爲主로하고 開鬱·順氣化痰·清肺의 法을 運用한다<sup>7. 8)</sup>.

이에 本人은 氣嗽의 原因과 證狀 및 治療에 對하여 調査하고 分類하여,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 이다.

## II . 本 論

### 1. 《濟衆新編》<sup>9)</sup>

因 七氣凝結

症 狀如敗絮或如梅之實得咽喉 咯不出嚔不下或膈痞滿痰涎壅盛

治 四七湯 七氣湯 分心氣飲

### 2. 《醫學入門》<sup>5)</sup>

因 七氣積傷 痰涎凝結

症 咳嗽如敗絮或如梅核滯塞咽喉 咯不出嚔不下

婦人多有之

治 三子養親湯 橘薑丸

### 3. 《醫門寶鑑》<sup>10)</sup>

因 七情成痰

症 咯不出嚔不下

治 三子養親湯 鮮子煎

### 4. 《精神神經科學》<sup>11)</sup>

因 七氣凝滯

症 狀如敗絮或如梅核 窒碍咽喉咯不出嚔不下 或膈痞滿痰涎壅盛

治 四七湯

5. 《方藥指鍼》<sup>12)</sup>

因 七氣相干 痰涎凝結

症 狀如敗絮或如梅核 窒碍於咽喉之間咯不出  
嚥不下 或中滿 上氣喘急

治 四七湯 蘇子降氣湯 蘇子導痰降氣湯  
加味四七湯 三子養親湯

6. 《春鑑錄》<sup>13)</sup>

因 七氣積傷 痰涎凝結

症 咳嗽 如敗絮或如梅核 滯塞咽喉  
咯不嚥不下  
婦人多有之

治 蘇子降氣湯 加味四七湯

7. 《診療要鑑》<sup>7)</sup>

因 七情의 氣로 因하여 鬱結하여 發生 或  
은 飲食을 할 때 腦努에 觸犯함으로써  
發生

症 梅核과 같고 敗絮와 같으며 咽喉 사이  
에서 咳하나 나오지 않고, 嚥하나 下  
하지 않는 것, 或은 中脘이 痞滿하여  
氣가 舒快하지 못한 것, 或은 痰涎이  
壅盛하고 上氣하여 喘急한 것,  
혹은 痰飲으로 因하여 惡心嘔吐 한다.

治 開鬱 順氣 利膈 化痰 清肺  
加味四七湯

8. 《東醫肺系內科學》<sup>14)</sup>

因 대체로 七氣鬱結 或 勞傷脾肺 或 七氣  
가 積傷하여 發한다.

症 咳嗽하며 痰涎이 凝結하여 或如絮 或  
如 梅核하며 滯塞咽喉하여 咯不出嚥不  
下하고 婦人에게 많이 發한다.

治 蘇子降氣湯 加味四七湯을 주로 應用하

며, 老人에게는 三子養親湯을 合하여  
使用한다.

團蔘飲子 靑龍散 蘇子煎 玉粉丸  
星香丸 橘薑丸

9. 《東醫寶鑑》<sup>2)</sup>

因 七氣積傷 痰涎凝結

症 咳嗽 如敗絮或如梅核 滯塞咽喉 咯不出  
嚥不下 婦人多有之

治 三子養親湯 團蔘飲子 靑龍散 蘇子煎  
玉粉丸 星香丸 橘薑丸

10. 《後世處方學》<sup>15)</sup>

因 七情 氣鬱로 痰涎이 모여서 發生

症 梅核이 뱉어도 안나오고, 삼켜도 안내  
려 가며, 가슴이 그득하고 숨차며, 혹  
은 기침도 하고 혹은 嘔吐도 하며, 혹  
은 위로 치밀어 올라 오면서 아프기도  
한다.

治 七氣湯

11. 《奇效良方》<sup>16)</sup>

因 四七情喜怒憂思悲驚恐之氣結成痰涎

症 如敗絮或如梅核  
滯塞咽喉咯不出嚥不下  
中脘痞滿 氣不舒快  
或 痰飲 嘔逆 惡心

治 半夏湯

12. 《中國醫藥匯海》<sup>17)</sup>

因 七情氣鬱結成痰涎隨氣積聚堅

症 大如塊在心腹間 或塞咽喉如梅核紛絮樣  
咯不出嚥不下 每發欲節逆害飲食

治 四七湯

13. 《太平聖惠方》<sup>18)</sup>

因 有愁思慮五臟氣逆胸膈痰結  
症 咽喉中如有物噎塞不通吞不能入吐不能出  
治 木香散

14. 《古今醫鑑 醫部全錄》<sup>19)</sup>

因 喜怒太過積熱蘊釀及成痰涎凝結  
症 窒礙於咽喉之間  
咯不出嚥不下如梅核之狀  
治 加味四七湯 加味二陳湯

15. 《類證治裁》<sup>20)</sup>

因 七情氣鬱  
症 喉間如絮咯不出嚥不下  
治 三因七氣湯

16. 《東洋醫學叢書》<sup>21)</sup>

因 七情鬱結 氣機不利  
症 咽喉中有異常感覺 如有物硬 咯之不出  
嚥不下 沒有疼痛 不得飲食 每隨情志之  
波動而變化  
時輕時重 精神抑鬱 諸多疑慮 胸脇脹滿  
困倦 消瘦 便糖  
婦人常見月經不調 舌質暗滯 脈弦  
治 疏肝解鬱 行氣導滯 散結除痰  
半夏厚朴湯

17. 《六科準繩》<sup>22)</sup>

因 喜怒哀思悲驚恐之氣結成痰涎  
症 狀如敗絮或如梅核在咽喉之間  
咯不出嚥不下 中脘痞滿 氣不舒快  
或痰飲嘔逆惡心  
治 四七湯

18. 《醫方集解》<sup>23)</sup>

因 氣鬱則痰聚  
治 散鬱 行氣化痰  
蘇子降氣湯 七氣湯 四七湯

19. 《萬病醫藥顧問》<sup>24)</sup>

因 七情鬱痰滯  
症 喉中形如梅核嚥之不下咯之不出 中脘痞  
滿 氣不舒快或痰飲嘔逆惡心時吐酸水  
治 槐花酒

20. 《醫方類聚》<sup>25)</sup>

因 喜怒哀思悲驚恐之氣結成痰涎  
症 狀如敗絮或如梅核在咽喉之間 咯不出嚥  
不下 中脘痞滿氣不舒快或痰飲嘔逆惡心  
治 半夏 茯苓 紫蘇葉 厚朴

### III. 考 察

咳嗽는 呼吸器 疾患 中에서 가장 많이 나  
타는 症狀으로 起源은 紀元 前 2~3 世紀  
頃에 쓰여진 黃帝內經의 各篇에서 始作되었  
다. 一般的으로 咳嗽의 定意를 살펴보면,  
咳는 有聲無痰으로 肺氣가 損傷되어 不利한  
것이며, 嗽는 有痰無聲으로 脾濕이 動하여  
痰이 된 所致이다. 咳嗽는 有痰有聲한 것으  
로, 肺氣가 損傷되고 脾濕이 動하여 咳嗽가  
發生하므로 理氣·祛痰·潤肺 等の 方法으  
로 治療하였다.

咳嗽에는 風寒咳嗽·痰飲咳嗽·火鬱咳嗽  
勞嗽·肺脹의 區分이 있으며, 寒嗽·熱嗽·  
濕嗽·鬱嗽·勞嗽·食積嗽·氣嗽·痰嗽·乾  
嗽·血嗽·酒嗽·久嗽·火嗽·夜嗽 및 天

行嗽가 있다. 또 午後嗽·夜嗽·五更嗽·暴嗽·卒咳嗽·久嗽 등으로 咳嗽을 分類하였다. 咳嗽의 原因은 風·寒·暑·濕·燥·熱(火)의 六氣로 因한 外因과 臟腑機能失調로 因한 內因으로 나누어 진다.

西洋醫學에서의 咳嗽은 氣管支 內에 過度한 粘液生産量으로 過量의 喀痰이 排出되는 것이니 氣管支 粘液線의 增加와 小氣道內의 慢性炎症性 變化에 依한 氣道狹窄으로 發生한다고 하였다<sup>26)</sup>.

이 中 氣嗽은 七情의 氣로 因하여 鬱結하여 發生하거나, 或은 飲食을 할 때 腦努에 觸犯함으로써 發生하며, 梅核과 같고 敗絮와 같으며 咽喉 사이에서 異物感이 있고 咯不出嚥不下의 代表的인 症을 隨伴하는 咳嗽의 一種으로 그 原因 症狀 및 治療에 對하여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氣嗽의 原因에 대하여 康<sup>9)</sup> 金<sup>11)</sup> 林<sup>20)</sup>은 “七氣凝結或滯”이라 하였고, 李<sup>5)</sup> 朱<sup>10)</sup> 孟<sup>12)</sup> 鄭<sup>13)</sup> 許<sup>2)</sup> 趙<sup>15)</sup> 方<sup>16)</sup> 蔡<sup>17)</sup> 陳<sup>19)</sup> 王<sup>22)</sup> 汪<sup>23)</sup> 陸<sup>24)</sup> 등은 “七氣積傷 痰涎凝結”라고 하였으며, 金<sup>7)</sup>은 “七情의 氣로 因하여 鬱結하여 發生하거나, 或은 飲食을 할 때 腦努에 觸犯함으로써 發生한다.”라고 하였고, 李<sup>14)</sup>는 “대체로 七氣鬱結 或 勞傷脾肺 或 七氣가 積傷하여 發한다.”고 했으며, 《東洋醫學叢書》<sup>21)</sup>에서는 “七情鬱結 氣機不利”라고 記述하였다.

氣嗽의 症狀에 對하여 모든 文獻에서 氣嗽의 代表 症狀인 “狀如敗絮或如梅核 窒碍於咽喉之間 咯不出嚥不下 或中滿 上氣喘急”을 敍述하였고, 金<sup>7)</sup> 蔡<sup>17)</sup> 王<sup>22)</sup> 陸<sup>24)</sup> 등은 上記 症狀에 “痰飲嘔逆惡心時吐酸水” 등의 症狀을 附加하여 添附하였으며, 《東洋醫學叢書》<sup>21)</sup>에서는 “咽喉中有異常感覺 如有物硬 咯之不出嚥不下 沒有疼痛 不得飲食 每隨情志之 波動而變化 時輕時重 精神抑鬱 諸多疑慮 胸脇脹滿 困倦 消瘦 便糖 婦人常

見月經不調 舌質暗滯 脈弦”과 같이 比較的 詳細하게 記述하였다.

治法에 對하여 金<sup>7)</sup>은 “開鬱 順氣 利膈 化痰 清肺”을 말하였고, 汪<sup>23)</sup>은 “散鬱行氣化痰”이라 하였으며, 《東洋醫學叢書》<sup>21)</sup>에서는 “疏肝解鬱 行氣導滯 散結除痰”을 敍述하였다.

治方에 對하여 四七湯 七氣湯 加味四七湯 蘇子降氣湯을 代表方으로 그 外에 分心氣飲 三子養親湯 橘薑丸 鮮子煎 團蔘飲子 青龍散 蘇子煎 玉粉丸 星香丸 半夏湯 木香散 加味二陳湯 三因七氣湯 半夏厚朴湯 槐花酒 등 使用하였다.

#### IV . 結 論

以上 總 20種의 文獻을 考察하여 氣嗽에 對한 原因 症狀 및 그 治療에 對하여 調査 分類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氣嗽의 原因은 七氣凝結或滯 氣機不利 痰涎凝結 勞傷脾肺 或은 飲食을 할 때 腦努에 觸犯에 依하여 발생한다 하였다.
2. 氣嗽의 症狀은 窒礙於咽喉之間 咯不出嚥不下如梅核之狀 中脘痞滿 氣不舒快或 痰飲嘔逆惡心 時吐酸水 時輕時重 精神抑鬱 諸多疑慮 胸脇脹滿 困倦 消瘦 便糖 婦人常見月經不調 舌質暗滯 脈弦 등을 나타 냈다.
3. 氣嗽의 治法에는 “開鬱 行氣 利膈 清肺 化痰 疏肝解鬱 行氣導滯 散結除痰” 등을 利用하였다.
4. 治方으로는 七氣湯 加味四七湯 蘇子降氣湯 半夏厚朴湯을 主로 使用하였다.

## 參 考 文 獻

- 1) 虞 搏 : 醫學正傳, 서울成輔社, 1986, P 95, 99.
- 2) 許 浚 : 東醫寶鑑, 서울南山堂, 1966, P 467, 468, 473.
- 3) 巢元方 : 諸病原候論, 臺北 集文書局, p 234-224.
- 4) 陳無擇 :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28.
- 5) 李 梈 : 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0, 卷4 p 529-531.
- 6) JOURNAL 大韓 韓方 內科學會誌, 1990, Vol 11 No. 2 p 104.
- 7) 金定濟 : 診療要鑑(上), 서울東洋醫學, 1983, p 88.
- 8) 吳克潛 : 古今醫方集成, 서울 翰成社, 1980, p 472.
- 9) 康命吉 : 濟衆新編, 서울 杏林出版社, 1988, p 63.
- 10) 周明新 : 醫門寶鑑, 서울醫聖堂, p137.
- 11) 金相孝 : 韓方精神神經科學, 서울 慶熙大學校韓醫學部, p 53-55, 1975.
- 12) 孟華燮 : 方藥指鍼, 서울 杏林出版社, p 262-263, 1983.
- 13) 鄭 澐 : 春鑑錄, 서울一中社, 乾 p 41.
- 14) 李珩九 : 東醫肺系內科學, 서울 민선출판사, 1991, p 140-141.
- 15) 趙世衡 : 後世處方學, 서울癸丑出版社, 1980, p 236-237.
- 16) 方 賢 : 杏林良方, 香港 商務印書館, p 277.  
藥匯海(十), 서울 成輔社, 195, 1976.  
良方, 서울 翰成社, 卷 39, 1979.
- 19) 陳夢雷 :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第 5 冊, 서울 成輔社, p 1491, 1976.
- 20) 林珮琴 : 類證治裁,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 181.
- 21) 國際韓醫學學生會 : 東洋醫學叢書, 서울 一中社, 第8卷 咽喉科 p 85 - 86, 1991.
- 22) 王肯堂 : 六科準繩, 臺北新文豐出版社, 民國 68年, p 98.
- 23) 汪 昂 : 醫方集解, 서울一中社, 1990, p 135, 138-139.
- 24) 陸青節 : 萬病醫藥顧問, 中醫叢書 上卷 婦人科 p 161-162, 1978.
- 25) 世宗命 : 醫方類聚, 서울 여강출판사, 第 9卷, p 495, 1965.
- 26) 李宇柱 : 藥理學講義, 서울鮮一文化社, 1984, P 108, 109, 111, 402-404, 410-412.

# A B S T R A C T

The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cause, symptom and treatment of Gi-Su (氣嗽)

O.M.D. Kim, jung hwa  
Dept. of Oriental internal  
Medicine of Sangji university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ause, symptom and treatment of Gi-Su (氣嗽) by referring to 20 literatu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factors causing Gi-Su (氣嗽) divided into 3 groups. The 1st outer factors are mental element, 2nd spleen weak 3rd dam(痰).
2. The symptom of Gi-Su (氣嗽) is as follows.  
stimulus feeling in throat, cough, pain of sub-ribs, bad feeling, retching, vomiting, unfair, fatigue, worn, diarrhea, dark tongue, makhyun (脈弦).
3. The treatment of Gi-Su (氣嗽) is as follows.  
gaewulhanggi (開鬱行氣), egichungpae (利膈清肺), hwadam (化痰),  
soganhaeWul (疏肝解鬱), hanggidoche (行氣導滯), sangyuljedam (散結除痰)
4. The drugs of Gi-Su (氣嗽) is as follows.  
chilgitang (七氣湯), gamisachiltang (加味四七湯),  
sojaganggitang (蘇子降氣湯), banhahubaktang (半夏厚朴湯).